

開港初 韓日佛敎 교류에 대한 연구

김 경집(동국대 강사)

I 서 언

한국불교는 조선조의 지속된 배불정책에 의해 존립의 근거가 상실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 결과 조선 후기에 이르면 국가적 차원의 신앙은 사라지고 관습적이고 개인적인 신앙만이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불교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개항을 전후한 시기이다. 이때 한국사회는 외부로부터 전래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봉건적 사회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로의 자각과,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불교계의 현실인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였다. 그렇지만 오랜 배불의 영향으로 내재적 역량이 부족했던 한국불교는 그 변화의 폭을 넓히지 못했다. 그런 한국불교에 크게 영향을 준 것은 일본불교였다.

개항과 함께 시작된 한일 불교의 교류는 다방면으로 진행되었다. 어떻게 보면 교류보다는 일본의 일방적인 활동이었다. 그것은 당시 양국의 불교계가 지니고 있는 역량의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였다.

한국불교와 달리 종파적 특성이 유지되어온 일본불교는 교세확장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각 종파는 서양 열강의 각축장이 된 한국에서 일본의 한국침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양국의 신앙적 동질성을 최대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본불교의 활동과 포교방안은 국가의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일본불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었던 한국불교는 시대의 변화와 자신들의 부족함을 일본불교를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불교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변화에 집착한 나머지 일본불교에 동화되는 결과가 이어져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시기 한일 불교의 교류를 살펴보는 일은 일본불교의 의도와 한국불교의 변화를 찾는 작업이 될 수 있다.

II 개항과 일본불교의 전개

1. 일본불교의 한국 진출

일본불교가 한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876년 개항 이후이다. 강화도 조약에 의해 세 곳의 항구가 개방되면서 일본인의 진출이 많아지자 일본정부는 그들의 보호와 경제적 운용을 위한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 가운데 종교 활동이 매우 절실함을 깨닫고 1877년 일본정부는 내무부 大久保利通과 外務卿 寺島宗則이 本願寺 관장 嚴如上人에게 서한을 보내어 일본불교가 한국에 개교할 것을 의뢰하였다.¹⁾

그런 제안은 명치유신 이후 국가의 통제를 받던 일본불교로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런 이유로 일본불교의 내한활동은 그 이면에 일본정부의 정치적 침략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898년 10월 奥村圓心이 大谷派 本願寺 本山에 제출한 ‘광주개교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그들의 의의를 엿볼 수 있다.

1) 김정집, 『한국 근대불교사』 (경서원, 1998), 128쪽

나라와 법은 가족과 털과 같고 일본과 한국은 脣齒와 같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생각컨대 동방의 형세가 날로 악화되고 비야호로 한국의 상태는 형언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다. 이때 우리의 王法爲本 忠君愛國의 敎로 한국인들을 誘導·啓發함은 실로 우리 敎의 本旨이며 나라에 보답하는 법을 보호하는 가담이다. 하물며 我國의 文物風敎가 오늘의 성황을 가져옴이 옛날 한국의 誘導啓發에 의한 것임에라. 여기에 韓國布敎의 議는 일어난 것이다.²⁾

이 글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은 뗄 수 없는 숙명적 관계로서 현재 한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일본이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처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신의 교로 조선인들을 유도·계발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것은 동정도 아니고 침략도 아니며 지난 과거 한국이 자신들을 유도·계발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우호적인 과거의 선린관계를 빌미로 한국 내 일본불교의 침투를 합리화하는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라 할 수 있다.³⁾

일본정부가 의뢰한 본원사는 일찍부터 한국과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원사는 德川時代 이후 한국의 사절이 올 때마다 東京 淺草別院을 숙소로 제공하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었고, 역대 淺草本輪番은 한국의 사절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여 한국의 입장에서 호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⁴⁾ 그런 제안을 받은 본원사는 한국과 관계가 깊고 공로가 있는 淨信의 후에 奧村圓心和 平野惠粹 두 사람을 발탁하여 부산에 별원을 설치하여 개교할 것을 명하였다.⁵⁾

이와 같이 일본불교의 한국진출은 시작부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정부의 권유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개항 초기 불구하고 일본불교의 한국진

2) 朝鮮開敎監督部, 편 『朝鮮開敎五十年誌』(韓國近現代佛敎資料全集 62권, 民族社, 1996), 245쪽

3) 김경집, 앞의 책, 142쪽

4) 朝鮮開敎監督部, 위의 책, 188-189쪽

5) 朝鮮開敎監督部, 위의 책 312-313쪽

출은 급속하게 증가되지 않았다. 도성출입금지가 해제되는 1895년 4월 이전까지 한국에 별원이나 포교소를 개설한 종파는 眞宗本願寺, 大谷派本願寺, 西本願寺, 日蓮宗에 불과할 뿐이었다.⁶⁾

이런 분위기는 도성출입금지가 해제된 1895년 이후에 급속하게 변하였다. 그 해 8월 眞宗本願寺의 中山唯然이 부산에 개원한 것을 시작으로 1897년에는 淨土宗의 三隅田持門이 부산에 개원하였다. 1906년에는 正野上海運이 경성에 개교원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西本願寺는 1903년 嚴常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도에 힘쓰는 한편 1905년에는 開教總監部의 일부를 용산으로 이전하였다. 일본 眞言宗의 金武順道이 경성에 光雲寺를 설립한 것은 1905년이며, 1907년에 이르러서는 曹洞宗의 鶴田機運가 대전에 大田寺를 건립하였다. 일본불교 가운데 가장 늦게 경성에 포교소를 설치한 종파는 臨濟宗이었다.

이들 각 종파의 한국진출 이유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대한 포교였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한국인을 포교하여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 침략을 은폐하고자 하는 목적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한국불교와 밀접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⁷⁾

이런 일본불교의 한국진출은 한일합방 이후에는 더욱 급속하게 증가되어 각 종파의 별원과 포교소가 전국적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그 후 한국불교를 정치적으로 통치하려는 寺刹令이 반포되는 1911년에 이르면 다음과 같은 교세를 이루게 되었다.

먼저 日蓮宗은 조선 내에 11개의 사찰을 보유하고였으며, 眞宗本派 本願寺는 20개의 포교소 및 출장소를 보유하는 한편 부속사업으로 10개의 교육기관 및 청년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曹洞宗은 5개의 사찰과 4개의 포교소, 眞

6) 정광호, 『近代韓日佛敎關係史研究』(인하대출판부, 1994), 55쪽

7) 김승태 譯 『일제의 종교침략』(기독교문사, 1990), 61쪽

言宗은 1개의 사찰과 2개의 포교소, 淨土宗은 21개의 사찰과 출장소를 운영하면서 별도로 조선인만을 위한 포교를 위해 4개의 출장설교소를 설치하였다.⁸⁾

2. 일본불교의 포교방안

1) 일본불교의 활동을 위한 작업

일본불교는 한국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먼저 실추되어 있는 한국 승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⁹⁾ 일본불교가 가장 먼저 한국 승려의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도모한 것은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국 내 일본불교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당시 한국불교는 끊임없는 배불책이 실시된 결과 승려들의 신분이 하락되어 있었고, 양반이나 관리들은 당시 승려의 사회적 신분이 낮았음을 이용하여 사원 재정을 침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⁰⁾

이와 같은 시대적 여건 속에서 일본불교가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불교와 승려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신분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승려들에 대한 도성출입금지의 해제를 추진한 것이다. 해제이후 도성출입이 자유롭게 되고 법회를 통해 불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시점을 계기로 기존의 종파들은 물론이고 새로운 종파들이 앞을 다투어 조선으로 진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에 대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¹¹⁾

일본불교는 한국불교와 교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8) 유병덕, 「日帝時代의 佛敎」(『近代韓國佛敎史論』, 민족사, 1992), 155쪽

9) 加藤文教, 『韓國開教論』(韓國近現代佛敎資料全集, 제62권 민족사, 1996) 496쪽

10) 高橋亨, 『李朝佛敎』(寶文館, 1929), 902-903쪽

11) 김경집, 앞의 책, 140쪽

한국불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의 승려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계층이 될 때 일본불교의 포교활동도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승려들의 도성출입금지를 해제였다.¹²⁾

해제 과정을 보면 일본 日蓮宗의 승려 佐野前勵가 건너와 內閣總理大臣 金弘集에게 글을 올려 그 승려의 도성출입금지를 해제해 줄 것을 청하고 고종의 윤허가 내려진 것이 1895년(고종 32) 3월 29일(양력 4월 23일)이다.¹³⁾

일본불교의 일련종 승려였던 佐野前勵가 한국포교를 시작하면서 도성출입금지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은 다른 종파보다도 한국포교의 우세를 차지하려는 의도도 담겨져 있었다.¹⁴⁾

佐野前勵는 한국포교를 위해 경성에 체류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한국불교의 생기가 이미 사라져서는 승려에게 종지의 신조도 없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승려가 처해있는 어려운 난관을 해결하면서 은혜를 배푼다면 일련종으로 유인하는 계기는 물론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국불교계를 통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데서 나온 정책으로 생각된다.¹⁵⁾

일본의 일련종은 1881년 渡邊日蓮이 부산에 건너와 日宗會堂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1882년에는 旭日苗가 원산에 頂妙寺를 세웠다. 그 후 佐野前勵가 한국에 건너온 해인 1895년 인천에 妙覺寺를 세워 일련종 포교의 기반을 닦았다. 이어 그들은 서울에 護國寺와 經王寺, 진남포에 最勝寺, 군산에 安國寺, 함흥에 日蓮寺를 건립하는 등 자신들 종파의 진출에 크게 심혈을 기울였다.¹⁶⁾

12) 승려의 도성출입금지에 대한 해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지만 무위로 끝난 적이 있다. 김경집, 위의 책, 122-124쪽

13) 이능화, 『朝鮮佛敎通史』 下編 (新文館, 1918), 927쪽

14) 정광호, 앞의 책 55쪽

15) 김경집, 「근대 승니도성출입의 해금과 그 추이」 『한국불교학』 제24집(서울: 한국불교학회, 1998), 285쪽

佐野前勵는 1895년 管長의 대리로 堀日濇과 澁谷文英를 데리고 조선으로 건너와 德陽坊 桂山洞에 日蓮宗敎務所를 열고 포교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일본공사관의 알선으로 『法華經』 『安國論』 등의 서적과 향로 등을 궁내부에 헌상하고 궁내부 대신 李載冕과 면담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활동하였다. 이어 4월 15일에는 북한산 重興寺를 방문해서는 일련종 교리를 설명하고 가입할 것을 약속 받았다. 중흥사는 입성금지가 해제된 후 澁谷文英이 그 소식을 알려 ‘日蓮宗敎會本部’라는 간판을 거는 민첩함을 보였다. 이런 사정으로 미루어 그들이 조선포교에 대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¹⁷⁾

2) 일본불교로 개종을 위한 방안

일본불교는 한국에 들어와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 불교인들의 유인과 포섭 그리고 개종을 위한 각종의 방안들을 보면 그들의 의도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일본불교는 자신들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거나 물질공여 등으로 환심을 사는 일 그리고 교유와 우대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¹⁸⁾ 奥村圓心이 1898년 광주개교가 결정되면서 포교목적 및 방법에 관해 본산에 제출한 것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殖産興業을 장려하여 가능한 물질적 개발에 힘쓰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농업개량을 도모하고 양잠을 장려하여 수출품을 증진시키고, 그 지방의 농산물인 小麥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素麵製造를 가르치는 일로부터 부근 각지에서 산출되는 製紙의 수출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승속을 불문하고 지방 저명인사에게 일본을 시찰하게 하여 일반 개발을 보급한다는 것이다. 그 세부적 실행방법으로는 일년에 2명 이상 한

16) 유병덕, 앞의 논문 155쪽

17) 김승태, 앞의 책 56-58쪽

18) 朝鮮開敎監督部, 앞의 책 202쪽

국의 포교에 힘을 다하는 자는 승속을 떠나서 특별히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에 의해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포교사를 따라 일본종파의 본산에 참배한 일은 1898년 4월 京都 本願寺를 방문한 崔幹鎭과 崔世八 두 사람이었다. 경도의 본원사에서 教如上人의 기념법회가 열리게 되는 것을 기회로 奧村圓心の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이 일본을 시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광주에 본원사의 포교소가 세워질 때 도움이 크자 그 공을 갚는다는 차원에서 본산참배와 일본문물을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奧村圓心은 두 사람과 함께 본산으로 가 법회는 물론 일본문물에 접촉시킨다면 개교에 많은 성과를 얻을 것을 확신하였다. 奧村圓心은 그러한 계획을 관찰사 尹雄烈과 의논하고 그 의견에 동감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들은 목포에서 군함을 타고 부산을 거쳐 경도로 건너갔다.

두 사람은 해외의 귀한 손님으로 인정되어 법회에 참석하였고 奧村圓心과 본산의 재정적 지원으로 경도 각 지방을 시찰하였다. 시찰을 끝내고 5월에 귀국한 두 사람은 일본불교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귀국 후 승속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본의 발달과 함께 본원사의 후의와 성대함을 널리 선전하였다. 그러자 두 사람의 시찰소감을 듣기 위해 십리 내외의 사람들이 奧村圓心の 집으로 모였는데 그 수가 남녀 200명이 넘었다. 이런 후의를 입은 두 사람 가운데 崔幹鎭은 뒤에 奧村圓心과 그의 누이 圓心五百子が 一方學校를 설립하고자 할 때 자신의 집을 교사로 제공하는 등 그들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¹⁹⁾

종파적인 차원 이외에도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연대하여 시찰단을 보낸 경우도 있었다. 1907년(隆熙 1)에 한국정부는 30인을 선정하여 일본에 파견하여 각 관청사무를 시찰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東京에서 백 일 동안 각 관청사무와 학교의 교육규모 그리고 공장의 운영 등을 둘러보았다. 일본 측에서는 그들의 환심을 끌기 위해 일본천황의 알현, 일식과 양식의 향연, 上野

19) 朝鮮開教監督部, 위의 책 243-244쪽

公園 박람회 등을 관람시키는 후의를 보였다. 당시 그들을 인솔한 일본인도 그러한 시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당히 높은 직책의 관료들이 담당하였다. 그 결과 시찰을 다녀온 사람이 일본에서 느꼈던 좋은 인상을 잊을 수 없고 그 유용성이 상당히 컸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그들의 계획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⁰⁾

이런 방법 외에 사찰 단위로 조직된 시찰단이 일본을 다녀오는 것이 크게 유행하였다. 1909년에는 한국의 모든 승려를 대표해서 金東宣, 金萬愚 등 60여 명이 일본의 불교현황을 시찰하고 돌아왔다.²¹⁾ 1911년 4월에 楡岾寺의 攝理 金坦月과 金錦潭, 金東宣, 李麟谷, 金靑庵, 李德雲, 崔泰圓 등 7인이 일본시찰단을 조직하여 일본을 다녀왔다.²²⁾ 이후에도 시찰단에 대한 정책은 꾸준히 실행되었다.

셋째로 학교를 설립하여 청년을 계발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우려 한국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한국인 교사 한 명을 채용하며, 학생들에게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학용품도 무료로 제공하여 관심을 끌고자 하였다. 학업의 진행은 먼저 재래의 학예만을 수업시키다가 점차로 筆算·地理·歷史 등을 수업시키면서 마지막에 종교 윤리를 교육시키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에 있어서 학생 수는 10여 명으로 하되 관찰사·지방관 등과 교섭하여 가급적 좋은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고 재능이 뛰어난 자를 발탁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上申을 京都의 本山에 전달함과 동시에 奧村圓心の 內命을 받은 圓心五百子は 귀국하여 외무대신 등 고관대작을 만나 직접 한국포교의 의의를 설명하는 한편 본원사 總代인 南條文雄으로 하여금 외무성에 광주의 학교설립에 쓰일 보조금을 신청케 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그 후 외무성에서

20) 이능화, 「內地에 佛教視察團을 送함」(《朝鮮佛教叢報》 제6호, 1917), 3쪽

21) 小白頭陀, 「一號一言」(《佛教》 제24호), 35쪽

22) 『楡岾寺誌』(亞細亞文化社, 1977), 12쪽

나온 보조금과 함께 학교 교사, 의사, 취사부 기타 여러 사람을 데리고 광주로 돌아왔다.²³⁾

실제 일본불교는 종교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실제로 도성출입금지의 해제에 크게 공헌한 佐野前勵는 승려의 도성출입이 해제되던 1895년 4월 서울에 日韓學校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鑄洞에 700여 평의 대지를 마련하였다. 그는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하고 5월 11일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비판적 국내여론에 부딪혀 교회활동을 중단하면서 교육활동에 대한 계획도 중지하게 되었다.²⁴⁾

일련중 이외에도 일본불교의 종파는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1907년 淨土宗이 한국에 개교하면서 그 부속사업으로 通度寺와 결탁하여 사찰 안에 사립학교인 明進學校를 세운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²⁵⁾ 그들이 명진학교를 설립하고자 했던 목적은 한국의 청년승려와 일반 청년들에게 포교와 함께 보통교육을 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학교의 경영은 통도사의 대표자와 淨土宗開敎院이 공동으로 하며, 정토종에서는 경비의 약간을 보조하면서 開敎使를 파견하여 사업을 총관하고자 하였다. 그들도 역시 우수한 학생은 日本에 유학시킬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²⁶⁾ 이런 방법은 합방 이후에도 계속되어 1911년 본원사의 부속사업으로 한국 내에 학교가 건립되기에 이르렀다.²⁷⁾

23) 朝鮮開敎監督部, 앞의 책, 241-243쪽

24) 高橋亨, 앞의 책 901쪽

25) 통도사와 정토종이 연합하여 세운 학교로 1906년 불교연구회가 세운 동국대학교 전신인 명진학교와는 다르며, 현재 통도사 성보박물관 자리에 건립된 학교이다.

26) 靑柳南冥, 『朝鮮宗敎史』(朝鮮研究會, 1911), 139쪽

27) 靑柳南冥, 위의 책 134쪽

이때 세워진 학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京城：佛敎高等學校, 佛敎青年會夜學敎, 漢城普通學校.

黃海道：定州 日語學校, 鎭南浦 夜學敎.

平南：平壤 佛敎青年會夜學敎.

일본불교는 이러한 교육적 방법이 한국 내에서 자연스럽게 일본과 그들의 종교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교육과정 가운데 종교 윤리를 교육시킨다면 한국인으로 하여금 일본에 동화되어 內鮮一體의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학생의 수를 10여 명으로 제한한 것도 보편적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에 따라 특수교육을 하여 일본에 우호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고자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²⁸⁾

III 한국불교의 반응과 변화

1. 한국불교의 의식 변화

1) 일본불교에 대한 인식

개항을 전후한 시기 한국불교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종단적으로 불교신앙이 행해지기 어려웠다. 종단의 합법성이 박탈당하여 증명마저 없어진 채 산중에서 선과 함께 교를 겸수하며 지냈던 無宗山僧時代이기 때문이다.²⁹⁾ 이런 분위기에서 조선왕조는 외세의 침입과 함께 다가서는 서학의 전래에 위기감을 느끼자 재래종교인 불교에 친밀감을 가지고 민중들에게 내세워 신앙을 줄 수 있는 종교로 인식하는 등 다소 완화된 정책들을 제시하는 정도였다.³⁰⁾

慶南：金泉 日語學校.

28) 목정배, 「日帝時代의 韓國佛敎」 『釋林』 제15집(서울: 동국대석림회, 1981), 76-77쪽

29) 김영태, 「近代佛敎의 宗統 宗脉」 (『韓國近代宗敎思想史』, 圓光大出版局, 1984), 186쪽

30) 高橋亨, 앞의 책 851-852쪽

이와 같은 이유로 조선후기 불교활동은 개인적 신앙 활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들은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한편 자신들이 처하고 있던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하였지만 불교의 역량을 상승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시기에 한국에 들어와 조직적 활동을 보여준 일본불교의 활약은 놀라움을 주었다. 그것은 일본승려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일본불교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 같은 인식의 변화의 예로써 1895년 4월 도성출입금지가 해제되자 佐野前勵에게 감사의 글을 올리고 있는 龍珠寺 승려 釋尙順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大朝鮮國 수원 화산 용주사 승려 釋尙順은 삼가 大日本大尊師 閣下에게 축하의 절을 올립니다. 우리의 道는 이 나라에서는 천박하고 신분이 낮아 市京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500여 년이나 되어 항상 울적하였습니다. 다행히 交隣의 조약이 이루어져 大尊師 閣下께서 널리 만 리 밖에까지 자비의 큰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나라의 승려들로 하여금 500년 이래의 원통함과 비굴함에서 쾌히 일어서게 하시어 오늘 비로소 왕궁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실로 우리나라의 승려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입성에 즈음하여 大尊師 閣下에게 절을 올립니다.³¹⁾

이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한국의 모든 승려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글의 내용이 너무나 친일적이라 일반승려에게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 글을 쓴 상순은 한일합방 이후에도 친일적인 글을 쓴 인물이다.³²⁾ 이런 사실로 미루어 앞의 글이 다소 과장된 표현임을 짐작할 수 있지만 도성출입금지가 해제된 후 한국불교계에 나

31) 高橋亨, 위의 책 89쪽 “大朝鮮國京畿水原花山龍珠寺僧釋尙順 …… 今於入城敢曝淺誠拜于大尊師閣下”.

32) 정광호, 앞의 책 59쪽 주36) 참조.

타난 일본불교에 대한 시각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도성출입금지를 해제시킨 佐野前勵는 다시 사회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것은 한국의 국왕과 정부관료 그리고 당시 사회적 저명 인사들에게 불교를 알릴 수 있는 법회의 계획이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왕의 聖壽와 中興維新의 성업을 축하하는 대법회였지만 이면에는 일본불교의 우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일본불교의 한국침투라는 계획이 숨어 있었다.

그는 군무대신과 교섭하여 北一營의 사용을 허가 받았다. 그리고 5월 2일부터는 광고지를 도성 안의 요소에 게시하는 한편 정부 고위관리들에게 안내장을 보내 5월 5일 법회를 거행하였다. 이때 한국불교계에서는 南北漢山僧大將, 華溪寺, 白蓮寺, 龍珠寺 및 金剛山 승도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사회인사로서는 總理大臣 金弘集과 外務大臣 金允植을 비롯하여 學部大臣, 農工商部大臣 警務使 등 정부고관 20여 명과 일본인 저명인사가 40여 명, 그리고 일반 참석자를 합쳐 모두 1만 4천여 명에 달하는 군중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³³⁾

그 같은 성대한 법회는 한국의 불교인들에게 새로운 감회를 주었다. 배불 정책에 희생되어 고난의 역사를 간직한 채 천민으로 전락되어서 도성 안을 돌아다니지 못한 신세에서 벗어났다는 기쁨을 주었다. 그리고 도성 안에서 정부 관료와 사회 저명인사를 모시고 법회를 개설하였다는 것은 일시에 한국 불교가 증흥되는 기쁨을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일본불교의 대한 경외감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법회는 다시 1896년 7월에 도성 안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듬해 丙申年(1896) 秋 7월 諸山の 승려들이 일본 승려와 함께 京城 苑洞의 北一營 안에 法壇을 세우고는 수일에 걸쳐 無遮大會를 행하였다. 경성의 남녀가

33) 高橋亨, 앞의 책 900-901쪽

다투듯이 물러와서 구경하였다. 나 또한 군중들 속에서 함께 기뻐하였다. (중략)
크게 기뻐하는 자가 있어 말하길, “한국의 승려는 수백 년간이나 門外漢이었다. 오늘에야 비로소 구름이 걷힌 하늘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佛日이 다시 비출 것이다.” 하였다.³⁴⁾

수백 년 동안 사회의 주체적인 모습을 갖지 못하다가 이제 역사의 장으로 등장하는 불교인의 마음은 그야말로 구름이 걷힌 하늘에서 부처님의 광명이 비쳐지듯 일본불교를 바라보았을 것이다.

2) 한국승려의 개화의식 형성

일본불교의 진출은 한국승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 그 결과 개화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런 활약을 보인 승려로서 이능화가 지은 『朝鮮佛教通史』에 李東仁과 無不在 전해지고 있다.³⁵⁾

두 사람 이외에도 李允杲·車弘植을 비롯하여 많은 승려들이 일본에 건너가거나 국내에서 활동하였지만 자세한 행적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 가운데 이윤고는 김옥균의 일본방문 때 동행하는 등 개화운동에 적극적이었으나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자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김옥균이 일본정부에 의해 小笠原島로 유배되었을 때 함께 동행한 유일한 인물이라는 정도만 전해지고 있다. 또한 차홍식은 서울 花溪寺 출신으로 김옥균이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수행하였다. 그는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자 피신하지 못하고 관헌에 체포되어 처형되었다고 하는 행적만이 전해지고 있다.³⁶⁾

34) 이능화, 앞의 책 下編 927쪽 “翌年丙申秋七月 諸山僧侶與日本僧……今日始得披雲觀天 從此佛日可再輝矣”.

35) 이능화, 위의 책, 899쪽.

36) 이광린, 「開化僧 李東仁에 관한 새 史料」 (『韓國開化史의 諸問題』 一潮閣 1986), 2-3쪽

다행히 그 행적이 어느 정도 기록되어 생각의 일부나마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은 이동인과 무불이다. 이들은 당시 중앙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던 개화 사상에 힘입어 개화파와 연계해서는 자신들의 개혁사상을 펼쳤다. 그들은 개화파의 주선으로 일본에 건너가 신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국가정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소 진보적인 안목을 지니고 있었다.

먼저 이동인은 동래 범어사 출신으로 개화파의 일원으로 크게 활약한 개화승이다.³⁷⁾ 그는 누구보다도 새로운 문물과 해외지식에 대한 궁금증이 강하였다. 그래서 釜山에 일본불교의 別院이 개설되자 그들을 통해 세계정세를 알고자 하였다. 실제로 직접 일본에 건너가 새로운 문물을 습득하고 변모한 일본사회를 살펴보는 등 사회적 변화에 호기심을 보였다.³⁸⁾ 그것은 당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에 성공을 거둔 일본의 사정을 한국에도 적용시켜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개화의 방향을 전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³⁹⁾

그의 개화 의식은 한국이 빈약하여 부강하지 못한 인식에서 시작하고 있다.⁴⁰⁾ 그것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일부 있는 제도도 바뀌지 않은 데서 생긴 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⁴¹⁾ 그런 한계적 상황에 직면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부국강병으로 보았다. 그 방법에 있어

37) 이능화, 앞의 책 下編 899쪽

38) 奥村圓心, 『朝鮮國布敎日誌』 明治 13년 4월조 (韓國近現代佛敎資料全集 권62, 民族社, 1996), 404쪽

39) 朝鮮開敎監督部, 앞의 책, 309-310쪽

40) 이광린, 「開化僧 李東仁에 관한 새 史料」 (『韓國開化史의 諸問題』, 一潮閣, 1986), 5쪽

이동인의 개화관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은 「東仁聞書」와 「興亞會 參」이다. 전자는 花房公使가 이동인과 만나 2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동인에게 들은 것을 기록한 것으로 전문은 약 1,850字, 초서에 한자가 섞인 일본식 서한문이다. 그리고 후지는 흥아회에서 매월 발간하던 잡지인 『興亞會報告』 제4집(1880년 4월)에 게재된 글이다.

41) 이광린, 위의 논문 8쪽

서 공업과 상업의 발달을 꾀했다.

먼저 공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풍부한 광산과 개발되지 않은 땅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우리에게 자본과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본과 힘을 합하여 개발한다면 한국도 무비를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 상업의 발전은 수도에 六矣廛이라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음에 착안하여 먼저 육의전에서 배를 구입해서 일본인 상인을 고용하여 한국의 내륙과 개항장 사이에 통신의 길을 만들고 사람들이 개항장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을 일본정부에서 빌어 상인들에게 차입해 준다면 육의전의 상업은 성시를 이루며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경제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개화관은 당시 한국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양세력의 견제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너무나 강조한 것은 한계적이다. 일본 중심의 편향적인 사고력은 더 나아가 서양인은 타인이고 일본인은 형제라는 생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타인인 서양인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는 것보다 형제 사이인 일본인에게 항상 이익을 나누고 싶다는 심정을 보이고 있다.⁴²⁾

그런 생각으로 인해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해서 다소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지만 누구도 쉽게 사회변화에 대해 예견하지 못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처럼 진지하고 세심하게 분석하고 있었던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사회적인 제한이 뒤따르던 승려라는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진보적 성향은 불교계의 새로운 분위기를 일으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⁴³⁾

이와 같이 일본을 의지하는 이동인의 개혁관과 달리 무불은 국제적인 정세를 파악하고 한국의 개화를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무불은 卓挺堦의 범평

42) 이광린, 위의 논문 6-7쪽

43) 김경집, 앞의 책 65쪽

이다. 그는 百潭寺 출신으로 속명은 鼎植이다. 처음에 覺地라는 법명을 쓰다가 뒤에 무불로 바꿨다. 일찍부터 우리나라가 국운을 떨치지 못함을 걱정하여 불교에 귀의했지만 애국의 志氣가 매우 높아 일본에 건너가 開明에 대한 실체를 살피고자 하였다.⁴⁴⁾ 그가 본격적으로 개화파의 일원이 된 것은 華溪寺에서 金玉均을 만나 뜻이 일치된 이후이다.⁴⁵⁾

무불은 세 차례나 일본으로 건너가 새로운 지식을 체득하고자 하였다. 그의 1차 도일은 이동인보다 늦게 이루어졌다. 그가 일본에 온 것은 박영효와 김옥균 등의 명을 받아 이동인이 하는 일을 돕는 역할이었다.⁴⁶⁾

무불이 두 번째로 일본에 건너간 것은 이동인이 한미수호조약의 체결을 알선하기 위해 청국공사 何如璋을 만나러 갈 때의 동행이었다.⁴⁷⁾ 그는 두 번째 일본행에서 이동인과 헤어진 다음 神戶에서 주일본 영국영사인 W. G. Aston의 한국어 교사가 되었다. 동경에서 영국공사관 서기관인 E. N. Satow를 만나면서 서양문물에 대한 관심을 보임과 함께 그들에게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 주는 등 외국인과의 교류를 확대하였다.

3차 도일은 이동인이 紳士遊覽團을 이끌고 일본에 갈 예정이었다가 실종되자 이 일을 맡아 선발대 13명을 이끌고 일본으로 건너갔다.⁴⁸⁾ 이때 무불은 東京外國語學校 교사로 취직하였다. 그리고 외국정세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얻었다. 일본은 물론 당시 일본에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사절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들을 통해 세계정세에 대한 흐름과 안목을 배웠다.

당시 일본 재야인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던 福澤諭吉이 직접 자신이 간행하고 있던 신문에 「韓客死沒」이라는 기록에 따르면, 처음 일본에 와서 여

44) 이광린, 「卓挺植 論」(『開化期研究』, 一潮閣, 1994), 80쪽

45) 이능화, 앞의 책 下編 899쪽

46) 奧村圓心, 앞의 책 406쪽

47) 奧村圓心, 위의 책 421쪽

48) 이광린, 앞의 논문 71-73쪽

러 가지의 사물을 보거나 들었을 때 개명된 것을 부러워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야만이니 자기가 이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야만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고 개명의 길로 인도할까 고심하였다. 그 후 무불은 국정에 밝아 한국의 사절이 왔을 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서술하고 있음을 볼 때 그의 안목을 짐작할 수 있다.⁴⁹⁾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무불은 한국의 현실을 아직도 문명의 개화가 일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서양의 문물이 한국에 전해져 야만적 상태를 벗어나려면 서양의 문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의 습득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생각이 급병으로 성사되지 못했지만 당시 세계사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던 몇 안 되는 불교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생각하기에는 그리 어렵지 않다.⁵⁰⁾

2. 불교 교단의 변모

일본불교의 來韓活動이 한국불교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자 한국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교교단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것이 大法山인 元興寺의 창건이다. 그 과정을 보면 1899년 동대문 밖의 영미정이 소흥사로 창건되었다가 1902년 원흥사로 개칭되면서 한국불교의 大法山이 되었다.⁵¹⁾

원흥사는 總宗務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곳에 설치된 승직 가운데 특장적인 것은 總務院長인 都攝理와 경성부근의 사찰을 총감독하는 內山攝理이다. 內山은 京山을 지칭하는 말로 京城 내의 宮女와 兩班의 內房과 특

49) 이광린, 위의 논문 78-80쪽

50) 김경집, 앞의 책, 72쪽

51) 김경집, 「근대 원흥사의 창건과 시대적 의의」 『희당학보』 제7집(서울: 희당학회, 2002), 98-101쪽

별한 관계에 있어서 귀부인의 참배가 빈번하여 자연히 外道의 사찰과 구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승직 이외에도 左右校正, 大禪議, 上講議 각각 1인 그리고 理務 5인을 두었다. 그리고 13道에는 각각 1개소의 首寺를 두어 道內寺刹의 사무를 總轄하게 하였다. 이 中法山 道內首寺刹에는 攝理, 道校正, 副校正, 禪議, 講議 각각 1人씩을 두었고, 각 사찰에는 주지 1인을 두었다. 이때 13道의 中法山이 지정되었다.⁵²⁾

이러한 제도는 한국불교에 있어서 승정의 대변화라고 할 만큼 역사적 사건이다.⁵³⁾ 일본의 本山末寺와 비슷한 제도이지만⁵⁴⁾ 배불의 경향에서 본다면 불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불교가 사회에 다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탓에 당시 규모가 큰 사찰에서는 중법산에 선택된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런 분위기 탓에 선택되지 못한 다른 사찰들은 중법산에 선택될 수 있도록 운동을 벌였다. 처음에는 16개 사찰만이 중법산에 지정되었다가 뒤에 4개의 사찰이 추가되고 그리고 孤雲寺 등 10여 사찰의 승격으로 30本山이 되었다.⁵⁵⁾

이와 같은 제도의 정립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부족과 산중 불교시대의 한계 등으로 실제로 한국불교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후속적인 불교정책이 연계되지 않아 2년이 지나면서 폐지되었다.⁵⁶⁾

52) 이능화, 앞의 책 上編 616쪽

53) 高橋亨, 앞의 책 866-867쪽

54) 豊田武, 『日本宗教制度史の研究』(東京 厚生閣, 昭和 13년), 69-71쪽

일본에 있어서 本山制度는 일찍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중세와 근세를 거치면서 지속되었다. 그런 본산제도가 明治維新 이후에는 각 종파의 통합과 함께 一宗派 一本山으로 형성되어 宗政上的 실권을 본산에 있게 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불교 안에 있는 봉건적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유신정부의 통일성에 적응하고자 하는 근세 이후 시대상을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55) 김영수, 「朝鮮佛教統轄에 對하여」(《佛敎》91호, 1932), 14쪽

원흥사와 같은 대법산 제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라면 한국불교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것은 圓宗이라고 하는 종단의 건립이다.⁵⁷⁾ 1908년 3월 6일 각 도의 사찰대표 52인이 원흥사에서 총회를 열고 圓宗宗務院을 설립하고는 李晦光을 大宗正으로 金玄庵을 總務로 추대하였다. 이는 일찍이 종파축소와 무종파의 시대라는 오욕의 역사를 거쳐 온 한국불교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자각에 의해 종단이 복원된 의의를 지니고 있다.⁵⁸⁾

이와 같이 한국불교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원종이지만 그 활동은 자주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대중정으로 추대된 이회광은 당시 사회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던 일본불교와 연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행하였다.

먼저 一進會 회장 李容九가 조연한대로 한국불교의 장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불교의 원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설득을 듣고 그가 추천하는 일본 曹洞宗 승려 武田範之를 고문으로 추대하였다.⁵⁹⁾ 고문을 맡은 그는 이회광과 함께 일본 조동종과 한국의 원종과의 연합을 추진하였다.⁶⁰⁾

이회광은 1910년 10월 6일 원종종무원을 대표하여 전국 72개 사찰의 위임장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조동종 관장 石川素童과 만나 7개조로 된 연합문⁶¹⁾을 만들어 연합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이회광의 제의를 받은

56) 이능화, 앞의 책 上編 616쪽

57) 김영태, 앞의 논문 189쪽

58) 김영태, 『韓國佛敎史概說』(經書院, 1986), 245쪽

59) 박경훈, 「近世佛敎의 研究」(『近代韓國佛敎史論』, 民族社, 1989), 32쪽

60) 江田俊雄, 『朝鮮佛敎史의 研究』(東京 國書刊行會, 1977), 431쪽

61) 이능화, 앞의 책 下編 938쪽

- 一. 조선 전체의 圓宗寺院衆은 曹洞宗과 완전하고 영구히 연합 동맹하여 불교를 확장할 것.
- 一. 조선 圓宗宗務院은 曹洞宗宗務院에 顧問을 依屬할 것.
- 一. 曹洞宗宗務院은 조선 圓宗宗務院의 設立認可를 得함에 斡旋의 勞를 取할 것.

일본 조동종 관장 石川素童은 바로 승낙하지 않고 이견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의 원종은 일본의 조동종에 비하여 자격이 미흡하기 때문에 대등한 조건에서는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필요한 때에는 일본 조동종은 한국불교를 응원할 수 있다는 여운만을 남겼다.⁶²⁾

이 연합의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불교가 일본불교에 예측되는 불평등조약 임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연합은 체결되지 못했지만 당시 한국불교의 한계성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⁶³⁾

IV 結語

근대 한국과 일본의 불교교류는 쌍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교류보다는 일본의 일방적인 활동이었다. 그리고 정치적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오래 동안 쇠락한 여건에서 명맥만을 지켜온 한국 불교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활동을 지원한 일본불교와는 그 힘의 균형에서 이미 달랐기 때문이다.

-
- 一. 조선 圓宗宗務院은 曹洞宗의 포교에 대하여 相當한 便利를 圖할 것.
 - 一. 조선 圓宗宗務院은 曹洞宗宗務院에서 布敎師 若干員을 招聘하여 各 首寺에 配置하여 일반포교 및 청년승려의 敎育을 囑託하고 또는 曹洞宗宗務院이 필요로 인하여 布敎師를 派遣하는 時에는 조선 圓宗宗務院은 曹洞宗宗務院이 지정하는 地의 首寺나 禡 寺院에 宿舍를 定하여 일반포교 및 청년승려 敎育에 從事케 할 것.
 - 一. 本 縮盟은 雙方의 意가 不合하면 廢止變更 或 改正을 爲할 것.
 - 一. 本 縮盟은 其管轄處의 承認을 得하는 日로부터 效力을 발생함.

62) 高橋亨, 앞의 책 922-923쪽

63) 金敬鎭, 「근대 원종의 성립과 의의」 『한국불교학』 제29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2001), 241쪽

한국진출을 도모했던 일본정부는 자신들의 계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불교의 여러 종파에게 국가적 목적에 맞는 포교를 권유하였다. 일본불교의 활동도 거기에 맞춰 실행되었고 국가적인 이익과 함께 종교적인 이익이 도모되었다.

이런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신앙적 동질성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던 한국불교인들이 일본과 일본불교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진 것을 볼 때 그들의 활동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루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불교의 활동은 그 역량의 부족으로 의존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자 했던 개화승의 활동 역시 일본에 의존하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불교정책도 일본불교를 모방해서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래 동안 한국불교의 희망이었던 종단의 건립과 활동 역시 일본불교에 의존해서 이루어진 현실은 주체적 역량의 부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자기 혁신을 이룩하지 못한 한국불교는 일본불교의 의도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주제어

오쿠무라 엔신(okumura ensin), 사찰령(the temple regulation)

도성출입금지(prohibited for the monks to enter in the city), 사노(sano)

상순(sangsoon), 이동인(Lee,dongin), 무불(mubool), 원흥사(wonhungsa)

원종(wonjong), 이회광(Lee, hoigwang)

The Study of Buddhism ex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early opening a port.

Kim, Kyung-Jib

Inter-ex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was started after the opening a port in Korea in 1876 was one-sided activity of Japan that had a political intention. The Japanese government plotted penetration to Korea at that time. It also exhorted propagation in various sects of Japanese Buddhism to fit a national purpose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plan. Japanese Buddhism was planned not only for national advantages but also religious advantages.

Korean Buddhism was heavily influenced by Japanese Buddhism and therefore could not help consistently relying on the Japanese, as it was incapable of being independent. Korean policy which was carried out by a matter of national policy, imitated Japanese Buddhism.

And also there was a strong tendency to rely on Japanese Buddhism by enlightened Buddhist priest and monk's, who hoped to create a new era and set up a religious order in Korean Buddhism.

This sort of exchange extremely exposed Korean Buddhism's lack of subjective capability. As a result, Korean Buddhism which was unable to renovate itself, was unintentionally dragged into the Japanese Buddhism policy.